

# 10억 VS 160억 차이는 전략의 유무

## 사건 발생 동시에 구호단 파견·모금·집행 병행하는 체계 갖춰야

1면에서 계속

**#교계, 모금도 집행도 체계 無**  
불교계 모금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모금도 집행도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티 구호기금에 160억원을 모은 개신교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 조직적인 모금 활동을 펼쳤다.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이 그 예이다.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은 개신교계가 아이티 지진 참사를 지원하기 위해 교단과 구호기관이 협력해 만든 조직체다. 용어부터 교회와 연합을 사용해 연대적 성격과 정서의 일치를 고려했다. 특히,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은 사업체가 아닌 협의체로, 단일단체가 아닌 네트워크, 결의 기구가 아닌 논의기구, 상설기구가 아닌 한시기구라는 특징을 갖는다.

범개신교적 다자간 연대에 의한 협의체이지만 의사결정은 빨랐다. 모금만큼이나 집행도 빨랐다.

1·2월 모금된 금액을 갖고 2월 중순 월드비전 등 국제 구호단체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본부로 후원금을 보내 아이티 재건 사업에 쓰이게 했다. 각 교단들도 국내 구호단체에 후원금을 보내거나 교단별로 직접 현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시작했다. 연합단체들은 아이티 현지 교회협의회 등 교회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티를 도왔다.

특히, 한국교회연합봉사단이 아이티 지진 참사가 있는 1월 13일 구호팀을 즉시 파견하는 등 개신교계 단체들은 신속하게 행동해 왔다.

조계종은 2월 5-9일 아이티 의료 구호봉사단을 현지에 파견한 것이 전부였고, 그나마 모금액에 대한 집행 내역은 없다.

‘아름다운 동행’ 박용희 팀장은 “기본 사업인 자비나눔에 집중하기 위해 아이티 구호기금 모금은 3월 31일로 종료했다. 아직 평가 및 계획 추진 단계일 뿐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러 박 팀장은 “기금사용과 관련해 아이티 현지의 사정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며 종단 내 NGO, 해외 구호활동 단체 등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구성 중이다. 한편에 지원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기획단계다.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계종의 ‘아름다운 동행’, 태고종, 모금과 집행 병행하는 개신교계와 ‘아름다운 동행’이 여성화 비교되는 부분이다.

모금 역시, 조계종의 ‘아름다운 동행’을 비롯해 태고종, 천태종이 각각 마련한 구호기금은 (아이티 구호 등) 사찰별로 목적을 갖고 모인 금액이 아닌 시주함에 모아진 금액을 전용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름



조계종의 아이티 구호기금 마련 행사에서 한 불자가 기부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다운 동행’이 아이티 구호기금을 모은 1~3월을 즈음해 총무원에서는 본·말사 주지 임명이 계속되면서, 전국 조계종 사찰의 ‘아름다운 동행’ 후원이 종책 참여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어 왔다.

조계종의 ‘아름다운 동행’, 태고종의 ‘나누우리’, 천태종의 ‘나눔 하나되기’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아이티 지진 참사 등 상황 발생 시에는 별도의 연합체를 구성해 범불교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모금부터 집행까지 전략 필요**  
불교계 모금문화가 체계화되어야

후원 프로그램부터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조직된 이후 수해, 가뭄, 산불 등 국내의 재해·재난 지역에서 봉사 중이다.

이 단체는 SOS BANK, 생명의쌀은행, 나눔마켓, 희망펀드, 염소은행 등을 운영해 기금을 마련·사용 중이다.

‘생명의쌀 은행’은 추수감사절에 모인 1억원을 자본금으로 시작해 설립했다. 쌀이 없어 굶는 이들에게 쌀 대를 신청을 받는다. 특이한 점은 단순 대출에 그치지 않고 예금을 통해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예금 이자 및 원금은 ‘나눔에 하늘나

라에서 예금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라며 개인별 종교적 사명감에 바탕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이웃종교에서는 카드 등 마일리지 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리를 마케팅 기법에 적용시킨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불교계는 모금할 기부, 계좌 이체, ARS, 핸드폰 소액 결제 등 구매의연한 방식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이 ‘비움으로 행복찾기’를 주제로 진행 중인 자비연꽃 배지 달기, 1배 100원-108배 모금법회 등은 눈길을 끄

**불교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행사**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은 2010년 ‘저소득·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기금 조성 활동을 전개한다.

4월 14일 초하루 법회에는 전국 사찰에서 저소득·소외계층 위한 1배 108배 모금법회가 봉행된다.

5월 1일 난치병어린이 돕기 1배-100원모금-3000배 정진기도가 조계사 등에서 개최된다. 이어 9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모금 생방송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원, 불자기업인, 정치인, 불자연예인 등이 참석한다.

한편, 아름다운 동행은 3월부터 자비연꽃 배지를 1개당 1000원에 배포하고 있다.

국민은행 02-3501-04-132682 / 농협 053-01-275564  
ARS 1통당 2000원 060-700-0011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 기획·활용하려면**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는 모금전문가학교를 운영 중이다. 모금전문가학교는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이론과 기술, 현장모금 실습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모금의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있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는 굿네이버스 온라인 등 다양한 모금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이미지 전략 커뮤니케이션, 모금 네트워크 활용, 미디어 전략, 기업의 사회적 공헌, 세법을 통한 모금 등 이론과 조별 기획서 및 제안서 작성 등 실습으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 중이다. (02)2031-2113, www.makehope.org

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기념 배지와 저금통을 활용해 동참자의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절수행과 모금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호응이 크다.

교계에서는 모금 프로그램이 과거 기부함 보시, 계좌 이체 등과 같이 단방향에 머물러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소

통의 개념을 모금 프로그램으로 확

장시켜 모금단체와 후원인, 수혜자까지 소통시키는 쌍방향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불교계 추산 4000만 불자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불자의 마인드 변화, 단체인 네트워크 구축, 새 프로그램 운영 등 불교계 모금문화에 새바람이 불어야 한다.

조동섭·이상연 기자



주비와 목탁

## 수화통역사 양성하자

최근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어인 협회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 교우의 수화(手話)를 표준화한 사전 3종을 발간했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종교활동에서 배제됐던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포교·선교에 진력해 온 종교단체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농어인협회 관계자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를 표준화하지 않으면 이들은 끊임없이 정보습득 과정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화도 사투리가 있었다는 말이

다. 세대·지역·교육수준별로 표현법이 달라 청각장애인 사이에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수화 사투리로 인해 법회 등 종교활동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불교수화사전> 편찬에 참여한 광림사 주지 해성 스님은 “기존 60여 개 뿐이었던 불교수화용어를 이번 사전 편찬을 계기로 1000여 개를 추가했다. 그동안 한정됐던 불교수화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불교수화사전>이 전국 사찰에 보급된다 할지라도 불교수화 표현들을 설명해줄 수화통역사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청각장애인이 한글을 배우는 것은 비장애인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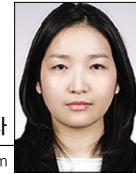
김장경 전 원심회 회장도 “불교용어는 어려운 뜻이 많아 청각장애인도 사전을 보고 그대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이를 잘 전달할 수화통역사가 필요한데 그 수가 매

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개신교, 가톨릭은 수화방송채널이 있을 정도로 수화포교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불교계는 어떠한가. 장애인포교를 위한 좋은 도구가 나왔는데도 이를 활용할 통역사가 부족해 고민하고 있다.

<불교수화사전>은 국립국어원이 편찬해 줬다. 손짓으로 부처님 법음을 전할 수화통역사 양성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이나은 기자  
bohnyung@buddhapia.com



## 조계종 승가대 교과과정 개편

조계종 전국 승가대학의 교과과정이 동국대 선학과·중앙승가대 수준으로 한글화·현대화·표준화된다. 또, 국내·외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스님들은 등록금 전액을 중비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검토했다. <표>

일각에서는 지방 승가대학에서 현대화된 교과목을 운영할 교수진 확보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일선 승가대학에서는 전통강원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저항

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4-6월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다

양한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원 관계자는 “3월 30일 현재 승가교육진흥기금은 약정 6억 4500만원, 모금액 3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개편 이전	항목	개편 이후
한문원전	교재형태	한글교재(학술·번역·개론서 등)
4개 과목	교과목수	8개 과목
서당식 교육	수업방식	현대적 교수법
사집 중심	교과내용	선종사, 선전 등 선학 관련 추가
실참 미반영	실참부분	이론·실참 병행하는 교과
응용 미반영	응용부분	현대적 연구성과 및 응용내용 추가
수업 참여	이수구분	학점제(성적 미달자 재수강)
25%(4년중 1년)	전체대비 수업비중	20%(졸업학점 120학점 경우)
사집반(2학년)에 집중	강의배치	난이도 따라 4년간 분산배치
불교계 현실적 수요와 무관한 교육진행	수요 민감도	불교계 현실적 수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

# 能仁香堂

## 향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 자연만을 모은 순수한 향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 能仁香堂

www.nihwa.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 3663-6777

능인향은 중국에 일체의 로얄티를 주지 않습니다. 능인향당의 침향은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등에 로얄티를 주고 수입하여 판매하는 침향과는 다른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향입니다.



능인침향 수 침향적정 침향 침향천관 침향천관 진 침향천관 수 관음수향 상적 무진 세심 능인 미륵 선해 음관 능인침향 적정 라벤더 로즈마리